

복지프리즘

10 호남신문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장애인단체 “박능후, 단체 분열 발언 사과하라” 농성

지난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별 폐지된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법정 단체’ 차별발언을 규탄하면서 ‘장애등급제 실질적 폐지’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박능후 장관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대한 브리핑에서 장애인단체를 ‘법정·비법정’ 단체로 나누면서 5개의 법정단체들이 비법정 단체들의 과도한 의견표출에 정부가 경도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들은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장애인 단체끼리 분열을 책동하고 차별하는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장관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IT 기반 한국형 복지전달체계 몽골 진출 본격

복지부, ‘한-몽 사회복지 협력 위한 MOU’ 체결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지받게 된 것 큰 의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민간지원 활성화 등 한국의 복지정책 모형이 몽골에 진출한다.

보건복지부와 민간대표단은 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몽골 노동사회보호부장관과 정부 간 회담에서 ‘한-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몽골 공무원 대상 사회복지분야 ODA 초청 연수(Welfare Korea Academy)

를 2017~2018년에 이어 2020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7월 17일 ‘한-몽 사회복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국 정부는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몽골 노동사회보호부 상자 문 군 치맥(Sanjaa Munganchimeg) 차관이 새로운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협력분야를 기존의 소득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인구 관

련 정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민간지원 활성화 등으로 확대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복지부 주최로 개최한 몽골 고위 및 실무 공무원 대상 사회복지분야 ODA 초청연수 프로그램도 몽골 공무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020년 재개하기로 했다.

3일에는 복지부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한국형 푸드뱅크 전수, 사회보장정보화 협력 및 공동모금제도 등 한국형 민간 복지모형을 전수하기 위해 몽골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 분야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일반국민의 기부식품 또는 생활용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국형 푸드뱅크 모형을 몽골에 전수하는 사업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지원이 시작이다.

한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75개 기관, 1000종 이상의 정보를 연계해 주요 복지대상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직 정보수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몽골 정보시스템엔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이력관리와 자원연계 등 우리나라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98

년 첫 연말 집중모금 전개 후 세계적인 공동모금기관으로 성장한 경험과 노하우를 몽골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동사회복지서비스청과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지원 등의 정책 추진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지지받게 된 것 역시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 복지모형이 몽골의 IT 기반 복지전달체계 고도화, 민간복지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들과 함께 금강산 방문 마련 할 것”

김홍걸,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서 밝혀

“옛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은, 넘지 못할 벽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일입니다.”

김홍걸(5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은 2일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9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출발식에서 “남북 간의 장애인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대회장인 김 의장은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73)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35)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가 두 최고 지도자만큼 큰 역할을 할 수는 없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김대중(1924~2009) 전 대통령과 이회호(1922~2019) 여사의 3남이다. 지난달 이 여사의 부고에 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의를 표했다. 당시 김 의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의에 감사하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셨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남북이 손잡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의 길에 함께 매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조만간 장애인들과 함께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 페스티벌은 장애인들의 잠재적 가능성(Ability), 열린 접근성(Accessibility), 활기찬 역동성(Activity)을 모두로 삼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Arts)로 함께(All Together)한다는 취지다. 2009년 출발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9월 6~8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대회장을 맡은 김 의장은 “장애인 예술인의 꿈과 열정을 보여주는 장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축제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뉴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들이 1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승지 마린파크 다이브 리조트에서 새한국잠수협회(KUDA 회장 유대수) 주최 주관으로 열린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앞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뉴시스 강원이 후원했다.

예방접종 피해 장애인 보상 확대...“차등지급 2단계로 감축”

6단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예방접종 등으로 장애를 겪게 될 때 보상기준도 ‘중증’과 ‘경증’만으로 구분해 2·3급과 5·6급 장애인의 보상수준이 종전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장애인이 됐을 때 정부는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원)을 기준으로 1급 편성 시 100%를 보상금

으로 지원한다. 기존 장애등급제상 지원범위는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25%씩 차감했다.

그러나 이날 부로 장애등급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기준도 ‘중증’과 ‘경증’ 등 장애 정도로만 구분되는데, 이때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은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을, 4~6급에 해당하는 경증은 4급 기준(55%)으로 일시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

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복지부 장관이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실질, 의료기술·정보시스템 이전 등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으면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조치다.

뉴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Together 광산구